

쇠사슬로 출입문 차단... 학생들 세워 놓고 처형하듯 쏘

■ 목격자들이 전하는 총기 난사 현장

“공포에 휩싸인 학생들이 강의실 벽에 기대어 줄지어 섰으며 범인은 마치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쏘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버지니아텍)에서 벌어진 미 역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사건이 서서히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범인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난사된 총탄에 희생됐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것은 물론이고 범행 현장을 둘러싼 목격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다만 목격자들은 범인이 엄청난 양의 총탄을 쏟아냈으며 시종 침착하게 범행을 진행했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드러지 리포트'의 보도에 따르면 주 범행현장인 공학부 건물 내 강의실에서 공포에 휩싸인 학생들은 벽을 뒤로 하고 줄지어 섰으며 범인은 총살형을 집행하듯 학생들을 쓰러뜨렸다. 범인은 미리 쇠사슬로 건물 출입문을 안쪽에서 묶어 놓았다. 학생들은 탈출할 수 없었고 경찰은 진입할 수 없었다. 피로 범벅이 된 사체가 하나둘씩 포개 올려졌다.

이날 오전 범인은 여자친구와 기숙사에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커져자 학생지도담당이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범인은 총을 꺼내 여자친구와 학생 지도 담당을 차례로 쏘아 숨지게 했다.

여자친구 살해하고 2시간 뒤 대학살

2시간 뒤 기숙사 총격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교정에서 기숙사 반대편에 위치한 공학부 건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무장비행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매트 멀로리라는 학생은 범인이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갖고 있었다”며 “그는 탄창이 주렁주렁 달린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교실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자는 범인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으나 눈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범인은 갈색 모자와 가죽 재킷, 검은 군복 모양의 사격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슴에 X자 형태로 탄약을 달고 자신의 9mm 권총에 탄약을 채워 난사하면서 이 강의실, 저 강의실을 옮겨다니는 것으로 목격됐다. 또 일부 강의실의 문을 잠근 학생들의 탈출을 막았으며 겁에 질린 몇몇 학생들은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책상으로 강의실 출입문

美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고

16일 미국 버지니아 남서부 블랙스버그 소재 버지니아공대(버지니아텍)에서 범인을 포함, 33명 사망, 최소한 28명이 부상. (한국인 1명 부상)



을 막았다.

데이비트 켈킨스라는 학생은 “한 학생은 강의실 바닥에 누워 죽은 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총격에 팔을 다친 데렉 오델이라는 학생은 “어떤 경고도 없었으며 그야말로 타치는대로 쏘았다”며 “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쏘고 강의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그나마 경상에 그친 학생들은 출입문을 닫아야 했다. 범인이 강의실로 다시 들어오려 했기 때문이다. 문을 막자 범

인은 문에다 대고 쏘기 시작했다”며 치를 떨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학생들의 증언

을 인용, 이날 총격이 매우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돼 일부 학생들은 총성을 인근 건설 현장의 발파음으로 착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총격은 쉽지만 10~20분 계속됐으며 종종 1분이 멈춰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때 범인은 총을 재장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현장인 노리스홀에 있었던 한 학생은 이날 과제를 마치고 강의실을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왔다. 홀 전체가 연기로 가득차고 무장경찰이 건물 사방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각 스티브 L. 헨드릭스 교수(기계공학)도 이 홀 3층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거어나오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는 뭔가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짐작, 자신의 연구실 문을 잠근 뒤 책상으로 막았다. 일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대피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알 수 없었다.



버지니아공과대학 학생들이 16일 위 메모리얼 채플 앞에 모여 총기난사로 숨진 친구들을 애도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첫 총격 2시간 후에야 위험 이메일

■ 학교 당국·경찰 늑장 대응 논란

기숙사만 통제...2차 총격 제지못해 대참극

미 버지니아공대 총격 참사 과정에서 대학 당국과 대학 경찰의 늑장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경찰은 범인이 처음 기숙사에 침입한 것을 알고도 왜 위험이 기숙사에만 한정됐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희생자가 난강의 동쪽 경비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은 왜 범인이 처음에 2명을 살해하고 대학 캠퍼스를 떠났는 것으로 추정했는가.

첫 총격 후 2시간여 후 강의실에서 희생자가 대량 발생할 때쯤에야 캠퍼스 전체에 위험을 알리는 이메일이 보내졌는데 왜 그렇게 경고를 지체했는가. 근본적으로 학교의 비상계획과 통신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대학 차스 스테거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대학 당국은 16일 오전 7시15분(현지시간)께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부자 소행이며 범인이 달아난 것으로 잘못 생각했었다고 “그 이후 참사가 일어날 줄은 생각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기숙사 총격 즉시 기숙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900명을 수용한 기숙사 각 방을 돌며 경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화 통지가 갔으며, 보안요원들을 기숙사에 배치하고 대학 구내 전체에 대한 순찰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구내 전체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 수천명이 오전 8시 수업을 들

기 위해 드넓은 구내 곳곳의 주차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어느 지점에서 통제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첫 총격에 관한 이메일 경고를 오전 9시26분에야 받았으며 범인이 2차 총격을 할 수 있도록 제지받지 않았던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버지니아 공대와 무관한 보안 전문가들은 대학 당국이 이런 종류의 비상사태 대응 요령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실행했는지, 비상통신 체계가 최선으로 구비됐는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전국학교안전서비스(NSSS)의 케네스 트럼프씨는 이런 비상사태 대응의 “관건은 학생과 학부모, 교수진과 교직원 등에게 알릴 수 있는 확실한 통신수단을 갖춰놓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공대는 이미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8월 총격 사건으로 캠퍼스가 폐쇄된 적이 있다.

/블랙스버그GAP-로이터=연합뉴스

美교내 총기난사 사건 일지



- ① 1997.10.1 미시시피 펄 3 ▲
- ② 1997.12.1 캔터키 퍼두커 3
- ③ 1998.3.24 아칸소 존즈버러 5
- ④ 1998.5.21 오리건 스포링필드 4 ▲
- ⑤ 1999.4.20 콜로라도 리틀턴 13 ●
- ⑥ 1999.8.10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5
- ⑦ 2001.3.5 캘리포니아 샌티 2
- ⑧ 2002.10.28 애리조나 투손 3 ●
- ⑨ 2005.3.21 미네소타 레드레이크 9 ▲
- ⑩ 2006.10.2 펜실베이니아 니켈 마인스 5 ●
- ⑪ 2007.4.16 버지니아 블랙스버그 32 ●

▲ 범인은 범인의 가족까지 살해
● 범인 사망(사망자 미포함)

/AFP=연합뉴스 그래픽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발전이 시작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활용

- 정부보조금: 총 설치비의 60% (3kwh 설치시 1,539만원 지원)
- 투자비 회수기간: 약 5년
- 내구성: 20년 이상

■3kwh 설치시 소요비용

- 정부보조금: 1,539만원
- 세부비용: 전화상담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태양열에너지를 온수와 난방으로 활용

- 정부보조금: 총 설치비의 50% (12㎡ 설치시 432만원 지원)
- 투자비 회수기간: 3~5년
- 내구성: 15년 이상

■12㎡ 설치시 소요비용

- 정부보조금: 432만원
- 세부비용: 전화상담

내 집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자!

태양광/태양열시스템 무상 보급보조 사업		
구분	주택용 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날짜	2007. 03. 05 이후	전화상담
대상	단독 및 다세대 주택(기존/신축) 등	복지시설, 공공건물, 목욕탕, 숙박시설 등
선정	선착순 마감	전화상담
시공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접수 및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식회사 한국에텍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77
연락처	전화:062-973-8846 팩스:062-973-8867
홈페이지	www.hketech.co.kr